

월요광장

‘태어난 아이’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아주 특별한 그림책이 재출간되었다. 독자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절판의 운명을 넘어 다시 우리 곁에 온 ‘태어난 아이’는 ‘백만 번 산 고양이’로 유명한 ‘사노 요코’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내놓는 책마다 독특한 발상과 깊은 통찰, 개성적인 그림으로 큰 감동을 안겨 주었던 그녀가 이미 자기 별로 돌아갔으니 ‘요코 스타일’의 유머와 독설, 거짓 없는 사유는 더 이상 만나기 어려울 터였다.

하지만 그게 뭐라고! 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용기종기 동네 서점에 모였다. 친구를 한 명씩 데려오고 번역한 선생님 을 모시고 낭독회를 열었다. 일본어와 우리말로 번갈아 읽어 주는 낭랑한 목소리에 스프라 이야기 속으로 끌려들어 가는 듯했다.

어린아이 손잡고 온 엄마, 지긋한 나이의 할머니, 아이들이 좋아해서 이 책을 알

게 되었다는 교사,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작가를 좋아한다는 젊은 남자, 지나다 들렀다는 행인은 각자의 마음을 두드린 문장과 그림을 소개하고 간간 이야기를 나눴다. 수줍게 꺼내 놓은 서로의 말들을 서로가 알아들었다. 두어 시간을 꼼짝 않고 읽어 주고 이야기하고 경청하고 발교래해진 얼굴로 헤어졌다. ‘서툰은 인간의 영혼을 파는 가게’라는 시인의 말씀처럼 삶과 사랑과 예술에 대한 채취를 깊게 경험한 철나의 기쁨을 안고 헤어졌다. 성큼 성큼 걸어가는 뒷모습들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아이들 같았다.

‘태어난 아이’는 이런 이야기다. ‘태어나고 싶지 않아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있었다. 날마다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우추한 가운데서 별 사이를 걸다 다녔다. 별에 부딪히기도 아프지 않았고,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도 뜨겁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무섭지 않고, 모기가 물어도 가렵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았으니 배고픔도, 시끄러운 거리의 부산함도 심지어 개한테 물린 상처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공원에 오도카니 앉아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을 바라보았다. 한 여자가 “안녕?”하고 인사를 해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여자아이가 개한테 물리고 울

면서 엄마를 찾아 뛰어가는 걸 보고 종종 따라간다. 엄마가 아이를 안아 주고, 씻기고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 주었다. 그때,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태어나고 싶어졌다. 자기도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서. 그리고 마침내 태어난다. 아이는 이제 상처에 눈물이 나고, 배가 고프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고, 피곤하면 졸음이 쏟아지는 진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태어난다는 것, 살아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과 감정은 우리가 태어났기에, 살아 있기에 느끼는 것이다. 생생한 감각으로 삶의 다양한 빛과 맛을 흠뻑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태어난 것이다. 사노 요코는 세계가 아름답다거나 삶은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태어나는 건 파란한 일이야”라고 말한다. 다만 ‘진짜로 사는 것’에 관해 말하고 싶어 한다. 아프고, 배고프고, 가렵고, 깔깔 웃고, 자랑도 하고, 실컷 놀면 피곤해지는 그런 삶 말이다.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계를 구경하며 사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다.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말을 기억한다. “엄마, 아파!” 삶의 첫 관문이 상처이자 치유라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나 괜찮다. 아이를 안아 주고 달래고 씻기고 반창고를 붙여 주는 엄마가 곁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잠을

꼭 자고 일어나 세상을 향해 성큼성큼 걸 어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물의 신발을 신고 우리의 심장으로 걸어오는 아이를 안아 주고 달래 주지 못해 잠들지 못한다. “엄마하고 나하고는 연결되어 있었어, 그래서 아픈 거야.”(‘금요일엔 돌아오렴’ 가운데) 엄마들이 거리에서 목 놓아 울고, 아이를 지켜 주지 못한 어른들과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이들에게 추위와 싸우며 촛불을 밝힌다. 무시와 모욕의 문화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술가들은 천막을 치고 노래하고 춤춘다. 일상을 빼앗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우정과 환대의 공동체가 움직인다. 성실하고 집요한 투쟁으로 깊고 깊은 바다에서 우리는 무엇을 건져 올릴 것인가?

세상을 창밖의 풍경으로 인식하지 말자.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함께 춤을 추는 진짜 삶 속으로 풍덩 뛰어들 때에만, 아프다 말하는 사람들 곁에서 멀어지지 않을 때에만, 슬픔과 분노로 멈춘 시계가 다시 움직일 때까지 읽고 쓰고 행동할 때에만, 우리는 ‘태어난 아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 그 삶이 행복한 것인지 불행한 것인지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기 고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멈추지 않고 간다



강 진 원
강진군수

‘비가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중략...)/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중략...)/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요즘 공·사석에서 가끔 암송하는 양광모 시인의 시 ‘멈추지 마라’이다. 나라 안팎, 특히 경제가 너무 어렵다. 위기가 물려와 스스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 각오를 다지고 용기를 가지려고 매번 인용한다.

급격한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지방소멸의 격랑 속에서 그 곁을 알 수 없는 심각한 불행이 엄습한 시골농촌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풍전 등황다. 침착같이 어두운 현실 아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감은 그 무엇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생존을 위해 뚝부림을 치고 있다.

지도자의 몫은 불리한 전쟁의 국면을 단숨에 격파하고 전세를 역전시키는 전사와 같다.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지도자의 통찰력은 지역과 지역민들의 현실과 미래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오는 남다른 수밖에 없다. 군수로서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2%대의 국내경제성장률 등 경제관련 각종 수치, 지역민의 살림살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이른바 ‘살 길’을 찾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강진이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공무원과 군인이 하나가 돼 힘을 모으고 있다.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올인하고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위기가 곧 기회임을 알기에 강진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 소득증창로 이어지게 하는 이러한 도전이 ‘블루오션’이다. 실제로 창조적 마인드가 발휘된 강진군민의 정책과 프로그램이 빛을 발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대구시와 강진군 간의 광역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해 영남권 관광객을 강진으로 몰려들게 했고 전남도에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한 가우도에 청자타워와 쥘트랙이란 수익형 체험시설을 만들어 ‘돈 버는 행장’을 실현했다. 주말이면 1만명 가까이 가우도를 찾

는다. 특히 젊은 연인들은 너나없이 국내 최장길이의 해상 쥘트랙을 타면서 즐거움을 만끽한다.

이와함께 농업이 주력산업인 강진군답게 농·어업인 소득확대를 위해 ‘푸소체통’ 등 감성문화마케팅을 적극 전개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여기에 올해를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또 다른 새로운 시도인 셈이다.

강진군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미래전략산업을 구체적으로 마련,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광주간 고속도로와 강진을 통과할 남해안철도가 2~3년 내에 개설되면서 다가올 급격한 변화에도 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대비하고 바꾸는 데 성공했다. 농업이 주력업인 동남부권을 살리기 위해 테네시강에 다목적 댐과 대규모 발전소를 세워 결국 대공황을 극복하는 기적을 이뤄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민이 이해와 힘을 모은다면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위가 막으면 깨트리면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두려움은 없다.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 것이다. 모두가 함께 끈 희망이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뜻 굳게해 전진한다.

하고 기존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해당분야 전문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상 공무원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어려울 때 오히려 기회가 온다고 믿는다. 인구가 적다고 실업률이 규모가 적다고 움츠러들고 자포자기해서는 안된다. 1930년대 초 대공황으로 절망에 빠져 있던 미국을 일으켜 세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는 그래서 내게 엄청난 메시지를 준다. 실업률이 25%를 넘었던 대공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왜 두렵지 않았겠는가. 루즈벨트는 ‘두려움, 그 자체가 가장 큰 적’이라고 외치며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신뢰’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농업이 주력업인 동남부권을 살리기 위해 테네시강에 다목적 댐과 대규모 발전소를 세워 결국 대공황을 극복하는 기적을 이뤄냈다.

지도자를 중심으로 지역민이 이해와 힘을 모은다면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 끊임없이 시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위가 막으면 깨트리면 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두려움은 없다.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 것이다. 모두가 함께 끈 희망이란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뜻 굳게해 전진한다.

법조칼럼

부검과 DNA감정



원 형 문
광주지검 검사

16년 전인 2001년 2월 4일 나주 두들강에서 17세 여고생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부검을 통해 피의자의 체액(DNA)이 발견되었으나,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었다. 2012년 8월에 DNA 일치로 피의자가 특정돼 수사가 개시되었다.

DNA(Deoxyribonucleic acid)는 세포핵 안에 있는 유전물질로 4개 염기(A·denine, Thymine, Guanine, Cytosine)로 구성되어 있고,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유전자 중 특정 염기서열 부분을 감식해 얻어지는 정보로서 일련의 숫자 혹은 부호의 조합으로 표기된 것이 유전자형(유전자신원확인정보)이다. DNA감정은 인체를 비롯한 생물 내에

존재하는 DNA 중 개인식별, 생물 종판별 등에 필요한 특정 부분을 분석해 범인 식별·신원확인 및 친족관계 확인, 분류군 및 종의 확인, 원산지·원료 확인 등에 활용하는 법과학적 기법을 말한다.(다연에 이감정규정 제2조) 고도로 발달된 공인된 DNA감식기술과 높은 정확도로 유죄를 추정하게 하는 DNA증거가 제시되면 무죄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이를 상쇄할 만한 무죄의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다.

DNA감정은 주로 살인 등 강력사건에서 활용된다. 1년 전 밤 12시30분경 하천변에 유기된 타살이 의심되는 만 18세의 임신한 여고생 변사체를 직접 검시하였다. 그 당시 사법경찰관은 범인으로 의심되는 두 명의 남자를 조사 중이었는데, 둘 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고 그 진술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피의자들의 옷과 신발을 압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분석을 의뢰하였고, 피의자들의 보관하고 있던 옷과 신고있던 신발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부검과 DNA 감정은 교통사고의 원인 분석에도 사용된다. 10년 전 당직근무 중 변사사건을 지휘하면서 부검에

반대하는 교통사고 뺑소니 사망 사건 피해자의 아들을 면담한 적이 있었다. 아간에 피해자가 도로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반대편 도로 바닥에 떨어졌고, 때마침 달려오는 다른 차량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배웃을 입을 상주는 부검을 하지 않고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필자는 피해자의 장남에게 부검해야 첫 번째 차량과 두 번째 차량이 피해자를 어떻게 충격하였는지, 두 번째 차량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갈 때 피해자가 살아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부검에 동의하였다. 부검 후 도망갔던 차량 운전자들이 체포되었고 부검으로 얻은 증거자료와 차량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DNA감정 증거물을 바탕으로 뺑소니범들을 엄벌할 수 있었다.

범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DNA감정은 범인 식별과 범행방법 특정을 하는데 유용한 증거로 사용된다. 9개월 전 흉기에 의해 수신했던 채로 사망한 변사체를 직접 검시하였다. 그 다음 날 체포된 피의자들은 기소될 때까지 진술거부

권을 행사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DNA를 특정하게 하고, 대검찰청에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범행도구에 관한 DNA 분석을 의뢰하였다. 재판 중 범행 도구에서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었다는 회신을 받아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범인들에게 징역 20년과 18년의 중형이 선고되었다.

DNA감정은 과학수사의 증거방법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NDFC)는 DNA 감식 시료의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집중 관리하는 부서도 두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광주지검 강력부는 지난 해 8월 5일 두들강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하였고, 지난 1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어, 망자가 된 피해자와 수소연할 데 없는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었다.

부검과 DNA감정은 과학적 수사방법으로 실제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 실현을 위해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社 說

5·18 왜곡세력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5·18은 북한군의 침투에 의한 것이라는 일부 극우보수 세력의 주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문건 공개로 인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민’ 허위임이 드러났다. 최근 몇 년 동안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 등 일부 보수 논객 및 매체들의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으로 이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낭설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5·18재단은 며칠 전 CIA가 공개한 비밀문건을 분석한 결과 ‘5·18은 북한군이 침투해서 일으킨 선동’이라는 지만원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CIA가 공개한 1980년 5월 9일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료를 보면 “북한은 한국의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는 기미도 없다”고 기록 돼 있다. 6월 2일 작성된 국가정보위원회 문건에는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어떤 행동도 전두환을 돕는 것임을 알고 있다”고 나와 있다.

5·18은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하지만 30년이 넘어가면서 역사 왜곡을 바로 잡는 것 또한 과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역사 왜곡론자가 지만원 씨인데 그는 그동안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광주시민을 북한특수군(일명 광수)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어 왔다. 지 씨가 북한군으로 지목한 광주 시민은 무려 1000여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지 씨는 현재 광주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1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5·18 단체인 이번 CIA 문건이 지 씨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서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김일성은

김기춘·조운선 구속 이제 대통령만 남았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범꾸러지’로 불렸던 정권 최고 실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운선 장관을 지난 주말 직권 남용 관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의 구속을 보면서 막혔던 가슴 한쪽이 뚫리는 듯한 느낌을 받은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각계각층의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에 대해 이들은 철저히 부인으로 일관하면서 제 한 톨 빠져나가기에 급급했으나 특검은 이를 사상·표현·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반헌법적 중대 범죄로 지목했다. 이어 법원은 이들이 정부 고위관료 위치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

로, 김 전 실장과 조운선 장관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거나 시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 전 실장은 압수수색을 앞둔 시점에서 사설 CCTV 영상 등의 정보를 상당량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문제 부장관 취임 직후 장관 집무실 및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인 예술정책국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여러한 특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제 최종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만을 남겨 놓고 있다. 어떤 정부보다는 창조 정신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에서 그것도 자유로운 사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문화예술 분야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특검 조사는 단순히 두 사람의 구속과 처벌이 목적이 아니다. 과연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우리 사회를 옥죄고 뒷걸음치게 만든 블랙리스트의 진상을 낱알이 국민 앞에 밝혀 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블랙(Black)은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블랙은 정치·종교·권력 등 권위와 관련지어질 땐 폼피나 우아함, 세련미를 상징한다. 반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죽음·암흑·악 등을 상징한다. 블랙리스트(Blacklist), 암시장 (Black market), 흑색선전(Black propaganda)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중 블랙리스트는 최근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단어다. 블랙리스트는 제거해야 할 적(敵)이나 특별 관리 명부, 또는 ‘손바 쥐야 할 대상’ 정도로 풀

유하며 취급 기회를 박탈하는 등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성격 차이는 있지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나 가족들이 5·18이 국가기밀법로 지정되기 전까지, 10여 년 이상을 공직에 진출하지 못한 경우도 블랙리스트 악용 사례이다. 한국판 블랙리스트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살상부는 계유정난을 주도한 세조의 측근 한명회가 제거 대상자를 적은 명부일 것이다.

고대 로마에도 프로스크립션(proscription, 공권 박탈)이라고 하는 명단이 있었다. 로마 공화정과 제2차 삼두정치

이된다.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없었던 시대에는 동일한 의미로 살상부(殺生簿)라는 말이 쓰였다.

블랙리스트는 영국의 찰스 2세가 자신의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았던 정적의 이름을 모은 장부를 작성한 데서 유래했다. 미국에서는 애초 ‘요주의 인물 명부’라는 노동 관계 은어로 사용됐다. 노조가 조직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성한 조합 조직책들의 인물 명부를 이른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화 시대에 각 기업들이 노조 간부에 대한 명단을 공

시기에 정적이나 위험인물의 명단을 로마 포럼의 높은 벽에 붙이면, 해당된 자는 어느 누가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화 시대나 독재 정권, 왕권 국가에나 있었던 블랙리스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작성되고 있다.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하는 곳이 문화계다. 박근혜 정권은 입으로선 문화 융성을 외치고, 뒤에서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으니 국정이 오죽했겠는가.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6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